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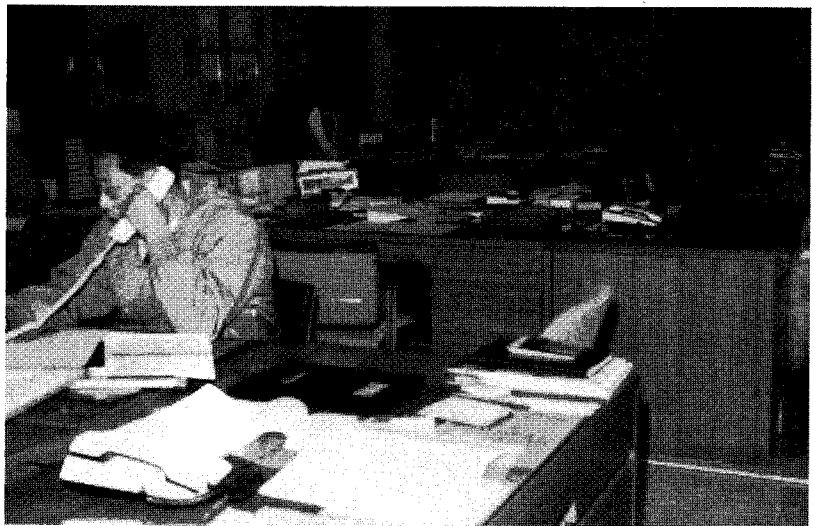
이건산업(주)

고품질의 그린제품 개발에 주력

목재 부산물로 포장의 역사를 바꾼다?

이건산업

- 1972년 12월 이견산업(주) 설립
- 1980년 10월 EAGON FOREST PRODUCTS, INC. 설립(미국)
- 1980년 11월 SIBU지사 설립(말레이시아)
- 1982년 12월 보통합판 KS마크 획득
- 1985년 8월 페놀코팅 방수합판 제조방법 특허
- 1987년 3월 열병합 발전소 준공
- 1987년 5월 JAKARTA지사 설립
- 1988년 4월 (주)이건창호시스템 설립
- 1989년 3월 Eagon Resources Development Co., Ltd. 설립(솔로몬 군도)
- 1990년 12월 사내 종합 복지관 준공(성수관)
- 1991년 2월 EAGON INDUSTRIAL. CO., Gmbh 설립(독일)
- 1993년 4월 FORESTAL LAUTARO S. A. 설립(칠레)
- 1994년 11월 Kotakina Balu 지사로 이전(말레이시아)



▲ 그린 사업의 다각화의 정보화를 이루려는 이견산업(주)

21세기를 위한 발돋움

‘목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을 이롭게’ 라는 기업 정신으로 출발한 이견산업(주)은 96년 유통시장의 개방에 맞서 생산라인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목재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이견산업(주)은 합판의 제조 및 목재 재생산업을 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다. 이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 물류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그린팔레트’와 ‘클립락시스템(물류포장시스템)’은 21세기를 향한 기회 창조에 매개로 작용할 만큼 실용성이나 경제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솔로몬 군도에서 재조림을 통한 자원의 재생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자원개발사업을 전개하여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목재부산물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재생산업을 전개하고 있다.

직접 이 두 제품의 생산공정에 관여하고 있는 김대영 이사는 제품의 만족도와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건그린팔레트는 목재팔레트와 플라스틱팔레트의 장점만을 모은 제품으로서 경제성과 환경보호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팔레트이며, 이견클립락시스템은 기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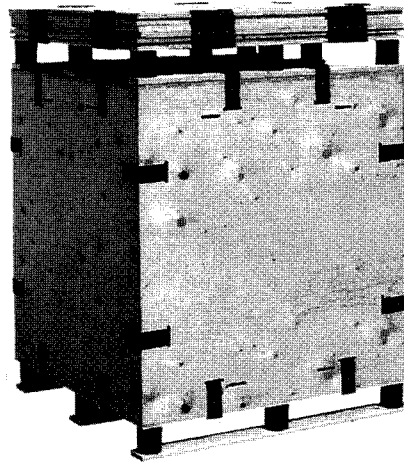
포장시스템과 비교해 회수와 재사용이 자유로운 포장시스템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누구나 손쉽게 분해조립이 가능하며, 무게가 가볍고 사용과 보관이 용이하므로 실질적인 비용절감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이건산업(주)이 새롭게 선보이는 이견그린팔레트는 고도로 자동화된 제조 설비에 의해 목재부산물을 1차와 2차로 분쇄한 후 완전 건조시켜 접착제를 투입해 고온·고압 성형방식으로 생산되는 팔레트로서 자원활용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볼 때 미래형 팔레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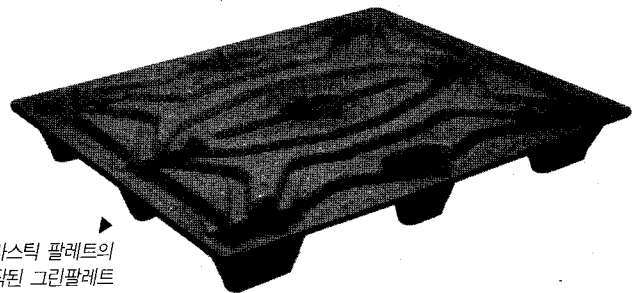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원자재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목재부산물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이견그린팔레트는 원목 의존률이 낮아 나무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적인 팔레트이다. 따라서 안정된 가격으로 대량공급이 가능하며, 운송비 역시 기존 팔레트에 비해 경제적이므로 물류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팔레트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견 그린프로덕트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이견산업(주)은 그린프로덕트 생산에 있어 새로운 모델개발을 위해 시장조사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 후 팔레트의 초기 디자인에 들어간다. 디자인된 팔레트는 다시 강도와 무게를 포함한 물성 및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실물 크기의 목형을 제작하여 각종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에 실제 제작되



◀ 클립 하나로 포장의 역사를 바꾼다는 이견클립시스템(조립된 BOX와 분해된 BOX의 부피 비교)



▶ 목재 및 플라스틱 팔레트의 장점만을 모아 제작된 그린팔레트 (8개 품목 중 EGPW-004)

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린팔레트의 특징에 대해 최명래 팀장은 “이견그린팔레트는 세계 최상의 팔레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베르잘리트(Werzalit)사와 기술제휴하여 생산하는 고성능 팔레트입니다. 규격이 일정한 포장의 경우 다중 적재가 가능하며, 최대 적재하중이 7.5톤 이상이므로 무거운 적재물의 보관 및 운송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여러 개의 팔레트를 중첩 적재하므로 기존 팔레트에 비해 적재 공간을 1/4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운송 비용 절감을 통해 물류비용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린팔레트는 완전 건조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므로 매우 위생적이며 습기로 인한 제품의 손상이나 팔레트의 변형을 막아 주고 장기간 운송시 세균이나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하여 수출시 검역(Quarantine)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결성, 목재부산물 및 재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고 수명이 다한 그린팔레트는 다시 새로운 그린팔레트의 재료로 재활용되거나 보일러 연료로 소각처리할 수 있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원 재활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목재부산물과 재생자원을 이용한 하이테크 공법으로 생산되므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목재

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신기술로 제작하여 생태계를 보존하는 환경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팔레트 외에 이견산업(주)에서 자신있게 선보인 클립락시스템은 오래 전부터 선진 외국에서 일반 제품은 물론이고 자동차 부품이나 액체류 제품의 운송과 보관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물류의 중요도 인식만큼 과학화된 제품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고 네덜란드의 Clip-Lock International Ltd.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생산하게 되었다.

‘이견클립락시스템’은 비용의 효율성과 용도의 다양성을 약속하는 새로운 차원의 혁신적인 물류포장시

스템이다. 기존 포장시스템과 비교해 회수와 재사용이 자유롭고 짧은 시간 내에 누구나 손쉽게 분해·조립이 가능하며 무게가 가볍고 사용과 보관이 용이하므로 실질적인 비용절감을 보장케 한다.

이 시스템은 무게를 받쳐주는 힘이 강해 차의 굴대나 몸체, 기어박스나 부속품 등을 조립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매우 이상적이며 운송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파손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준다. 또한 액체류제품의 경우 특수한 Bag을 내장한 Clip-Lock Liquid Box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할 수 있으며 도착후에도 하부에 설치된 밸브를 통해 손

쉽게 내용물을 빼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문화적인 기업

작은 노력의 작은 결실인 이견그린제품의 개발을 통해 ‘목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을 이롭게 한다’라는 기업정신을 조금씩 실천해 가고 있는 이견산업(주)은 ‘성수관’이라는 복지관 운영과 매년 1회에 걸쳐 음악회를 개최해 사원의 의기 함양과 문화적인 소양을 넓히고 있고 노사협의회가 격월로 주제발표 및 초청 강연회의 자리를 마련해 노사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신속한 문서처리와 정보화를 위해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사무실은 제2의 가정처럼 청결하고 명령 하달식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를 위해 간부들의 방에 손쉽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음 아닌 ‘세계속에 자리 잡는 전문 초우량 기업’이라는 중장기 경영이념과 해년마다 당기 경영방침을 설정해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룩하려는 경영진에게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이견산업(주)의 움직임에 대해 최명래 팀장은 “지구환경과 인간 생활이 보다 나아지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즉 고품질의 다양한 그린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환경이 보다 쾌적하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K]

[표 1] Technical Data

Moisture Contents: 6~8%/Density: 0.7~0.8

구 분	시험조건	결 과
만곡강도시험	압축속도 : 10mm/min 온도 : 23°C ± 2 Span : 1000mm	하중 : 1.0~2.0ton 휨량 : 10.0mm *KS A-1044에 근거
다리부 압축강도시험	압축속도 : 5mm/min 다리부분 구별 시험	무처리상태 : 3.0ton 3일간 물에 함침 후 : 2.6ton 75°C, 24시간 처리 : 2.6ton -45°C, 24시간 처리 : 3.0ton *KS A-1044 근거
미끄럼 시험	팔레트를 Channel 위에 놓고 들어 올리면서 미끄러지는 최초 각도 이동속도 : 45°/min Channel나비 : 100mm 온도 : 23°C ± 2	장방향 : 20°~25° 폭방향 : 20°~25°
	팔레트에 Box를 올려 놓은 후 들어 올리면서 미끄러지는 최초 각도 Box무게 : 30kg 이동속도 : 45°/min 온도 : 23°C ± 2	장방향 : 25°~30° 폭방향 : 35°~40° *JIS Z-0606에 근거
크리프 시험	전 표면에 추를 올려 놓은 후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측정 하중 : 1.3ton	장방향 : 10mm이하
충격 시험	추를 떨어뜨려 깨지는 시점에서의 높이 추 무게 : 20kg 추 재질 : 모래	높이 : 5m *JIS Z-0606에 근거

인터뷰 — 이견산업(주) 김대영 이사

힘의 역학에 뒤지지 않는 고품질 개발 시급

신제품에 대한 편향된 생각 버려야

이건그린팔레트의 개발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 알가알부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물류비용을 절감할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견산업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에 봉착해 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파손률방지와 적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로로 팔레트 생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91년도에 검토가 시작되어 92년 독일에서 기계를 도입해 95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린프로덕트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개발과정에 있어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기술을 독일에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컸다는 것을 첫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A/S비용도 말도 못했고요.

두번째로 그린팔레트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주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합니다. 금형상의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진청에서 팔레트를 표준화(1100mm×1100mm)한다는 발표(12월 18일부터 시행)로 어느 정도 무마되리라 봅니다. 이견산업에서도 올 1월과 3월에 금형이 완료돼 표준화된 규격으로 제품이 생산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소비자들의 인식에 있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제



▲ 이견그린프로덕트에 대해 설명하는 김대영 이사

품에 대한 홍보를 해 왔지만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외국에서 호응도가 좋아 작년에는 내수쪽보다 거의 수출에서 매출액을 높였습니다. 작년은 1차목표로 연간 50억의 매출을 예상했지만 시작단계였기 때문에 40%밖에 달성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8월 미국 농무성(USDA)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화물에 사용되는 팔레트와 기타 목재포장재(Pallets and other Solid Packing Materials)의 해충대책으로서의 무해충 증명서 첨부에 대한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팔레트 수출업체에서는 대책마련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산하는 그린팔레트는 100% 완전 방충이 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선진국에서는 규제지침이 강해질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의 규제지침에 대응하려는 자세보다 자체적으로 환경대응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노하우를 개발해 힘의 역학에서 뒤지지 않는 업체가 되기 위해 그린프로덕트에 심혈을 기울여 이 견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목재팔레트도 점차 그린팔레트화할 계획입니다.

변준섭 기자